

장애인의 직업능력 필요정도와 직무만족 간에 복리후생의 매개효과와 차별경험의 조절효과 검증

이형하^o

^o광주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e-mail: hhlee62@kwu.ac.kr^o

Verification of the mediating effect of welfare benefits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discriminatory experiences between the degree of job ability and job satisfaction of the disabled

Hyoung-Ha Lee^o

^oDept. of Social Welfare, Kwangju Women's University

● 요약 ●

본 연구에서는 2020장애인 고용패널조사 데이터 중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제활동 장애인의 직업능력 필요정도와 직무만족 간에 복리후생의 매개효과와 차별경험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키워드: 직업능력 필요정도(Degree of Job Ability), 직무만족(Job Satisfaction), 복리후생(Welfare Benefits), 차별경험(Discriminatory Experience), 매개효과(Mediating Effect),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

I. Introduction

Bolton(2001)[1]에 의하면 직업적 능력이란 직업에서 표준 수준에 맞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러나 장애인의 직업적 능력은 일차원에서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개인적인 능력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직업적 능력은 일정 수준 이상의 생산성 창출을 담보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나 근무기간 등을 향상하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다[2-3].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직업적 능력의 필요정도는 자신의 직무만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용된 사업장에서 지원되는 각종 복리후생 요인도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직장생활 중에 자주 접하게 되는 차별경험은 직무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의 직업적 능력의 필요정도와 직무만족 사이에 복리후생의 매개효과와 차별경험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II. The Proposed Scheme

본 연구에서는 2020장애인고용패널조사(2차웨이브 5차조사) 데이터 중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제활동 장애인 1,106명을 분석하였다. 장애인의 직업능력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관계와 이들 둘 변인 사이의 복리후생의 매개효과와 차별경험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Macro Process v3.5를 사용하였다. 주요 변수로는 직업능력 15개문항, 복리후생 8문항, 차별경험 8문항, 직무만족 6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측정변수의 Cronbach's Alpha, rho_A, C.R., AVE 값은 신뢰도 및 타당도 허용 범위로 분석되었다[4].

Table 1. Reliability and validity

| | Cronbach's Alpha | rho_A | Composite Reliability |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
|---------------------------|------------------|-------|-----------------------|----------------------------------|
| degree of job ability | 0.988 | 0.988 | 0.989 | 0.852 |
| welfare benefits | 0.953 | 0.977 | 0.963 | 0.816 |
| discriminatory experience | 0.950 | 0.952 | 0.958 | 0.742 |
| job satisfaction | 0.997 | 0.997 | 0.998 | 0.982 |

분석모형은 Macro Process Model 5을 활용하였다(Figure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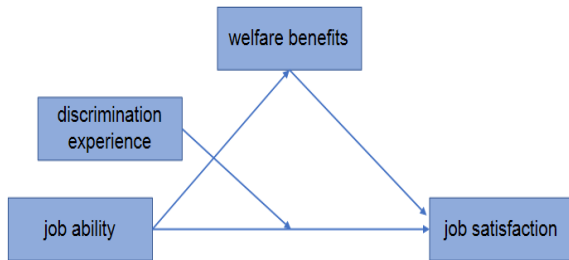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III. The Research results

구조방정식 모형에 대한 분석결과는 Figure3.과 같다.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chi^2=111.878(df=20, p<.001)$, CFI=.990, TLI=.962, RMSEA=.030로 확인되어 본 구조모형이 비교적 자료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variables | frequency(n) | | |
|----------------------|--|--------------------|---------------------------------|
| | male | female | |
| gender | 79.7%(881) | 20.3%(225) | |
| age | average 44.82(s.d. 9.93) min 22, max 69 | | |
| education status | middle low 7.8%(55) | high 42.6%(471) | college over 49.6%(549) |
| degree of disability | mild disability 81.8%(905) | | severe disability 18.2%(201) |

먼저, 장애인의 직업능력 필요정도와 직무만족 간에 직접효과와 복리후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Macro Process 5번 모델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Table 2 참조). 분석결과 장애인의 직업능력 필요정도(B=.1507, $p<.001$)와 복리후생(B=.1652, $p<.001$)은 직무만족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었고, 복리후생은(B=.0249)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2. Direct Effect and Mediating Effect of Welfare Benefits Between Degree of Job Ability and Job Satisfaction

| diret effect | | | | | |
|-------------------------|--------|--------|-----------|----------|-------|
| | B | SE | t | LLCI | ULCI |
| degree of job ability | .1507 | .0161 | 9.3837*** | .1192 | .1822 |
| welfare benefits | .1652 | .0405 | 4.0790*** | .0857 | .2447 |
| indiret effect | | | | | |
| | effect | BootSE | BootLLCI | BootULCI | |
| welfare benefits | .0249 | .0066 | .0126 | .0384 | |
| R-sq=.1061 F=28.7701*** | | | | | |

다음으로 장애인의 직업능력 필요정도와 직무만족 간에 차별경험의 조절효과에 대한 검증결과 차별경험($F=2.0033, p>.05$)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REFERENCES

- [1] Bolton, B. (2001). Measuring rehabilitation outcomes, Rehabilitation Counseling bulletin, 44(2), 67-75.
- [2] Burrus, J., Jackson, T., Xi, N., and Steinberg, J. (2013). Identifying the most important 21st century workforce competencies: An analysis of the Occupational Information Network(O* NET). ETS Research Report Series, 2013(2), 1-55.
- [3] Yglim. (2021). Effects of Occupational Ability Types on Labor Precariousness in People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53, 213-240.
- [4] Fornell, C., & Larcker, D. F.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https://doi.org/10.2307/3151312>